

전 남

순천시 추진 모든 사업 '올스톱' 위기

시의회, 정원박람회 출연금 삭감 등 제동 잇따라

내일 본회의서도 삭감되면 시정운영 파행 예상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등 순천시 현안들이 의회의 제동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순천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추진중인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오천택지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현안들이 의회의 제동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9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출범을 위한 출연금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도 부결시켰다.

의회측은 출연금 삭감자유로 시민

의견 수렴 필요성을, 지방채 발행안 부결 이유는 돈 흐름의 불투명성을 각각 들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출연금 문제는 지난해 제 5대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 6대 의회 개원시 출연키로 했는데 ‘의회가 의회를 부정’하는 바람에 정원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지방채 발행안 부결로 정원박람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던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도 표류하게 됐고, 총 350억원 규모의 발행액 중 이미 확보한 국비 147억원을 날릴 위기라며 의회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또 이에 앞서 지난 8월 화

물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에도 제동을 걸어 이달 착공계획이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시의회 행차위는 화물차 등 관련인 및 단체, 시민 의견수렴 미흡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부결한 상태로, 향후 본회의 상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위기다.

집행부는 지난해 말 민자업체까지 선정, 착공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되면 자칫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들어 내야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에서 정부와 국회, 전남도 등을 상대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과 서민경제와 직결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을 대폭 삭감해 파행이 우려된다.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의 ‘전국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 관련 국비기금사업(5억8600만원)과 2009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국비 시상금

(7000만원)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2억200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또 순천만 방문객들의 민박사업을 위해 전남도비로 지원한 행복마을 조성공과 한옥지원 사업비(3억9000만원)도 전액 삭감해 사업중단이 불가하게 됐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주암면 구산리 선정, 착공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찬성안과 반대안 모두 부결처리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애써 확보한 국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어 14일 본회의에서도 삭감될 경우 시장 운영에 파행이 예상된다”며 “애써 확보한 국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5억 바오밥나무에서 희귀 화석까지

신안 울도 '세계적 휴양형 수목원' 개장

신안군 지도읍 울도(200만㎡)에 세계적인 '휴양형 수목원'이 문을 열었다.

울도개발은 지난 11일 울도 수목원에서 이명중 대표를 비롯해 전남도, 신안군,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원 개장식을 가졌다.

울도개발은 지난 2007년 5월 신안군과 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수목원 조성 공사에 들어가 한 그루 가격이 5억원인 세계적 희귀종 바오밥나무(사진)를 비롯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수종의 난대성 수목과 활엽수 등 6만 그루를 심었다. 또 세계 최대 크기의 나무화석과 희귀 돌을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와 국내 최대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했다.

울도개발은 앞으로 수목원과 함께 500명 수용의 연수원을 비롯해 야외 수영장, 마라톤 및 해양 스포츠 시설,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인공폭포, 그리스 유적지 재현, 승마장, 세계 최대의 예술동상, 해수면 휴게소 등을 건설해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다. 또 300실 규모의 펜션 단지와 퍼블릭 골프장(6홀), 희귀식물 연구소 등을 갖춘 '비파랜드'도 조성한다.

이명중 울도개발 대표는 “희귀 수목 사이로 타조와 당나귀, 공작새, 청둥오리가 관광객과 함께하듯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수목원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면서 “울도 수목원을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

조성했다. 울도개발은 앞으로 수목원과 함께 500명 수용의 연수원을 비롯해 야외 수영장, 마라톤 및 해양 스포츠 시설,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인공폭포, 그리스 유적지 재현, 승마장, 세계 최대의 예술동상, 해수면 휴게소 등을 건설해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다. 또 300실 규모의 펜션 단지와 퍼블릭 골프장(6홀), 희귀식물 연구소 등을 갖춘 '비파랜드'도 조성한다.

이명중 울도개발 대표는 “희귀 수목 사이로 타조와 당나귀, 공작새, 청둥오리가 관광객과 함께하듯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수목원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면서 “울도 수목원을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

조성했다. 울도개발은 앞으로 수목원과 함께 500명 수용의 연수원을 비롯해 야외 수영장, 마라톤 및 해양 스포츠 시설,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인공폭포, 그리스 유적지 재현, 승마장, 세계 최대의 예술동상, 해수면 휴게소 등을 건설해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다. 또 300실 규모의 펜션 단지와 퍼블릭 골프장(6홀), 희귀식물 연구소 등을 갖춘 '비파랜드'도 조성한다.

이명중 울도개발 대표는 “희귀 수목 사이로 타조와 당나귀, 공작새, 청둥오리가 관광객과 함께하듯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수목원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면서 “울도 수목원을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



신안 울도 울도(영국은 돌 온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목원 개장과 함께 교통편도 개선됐다. 신안 지도읍 송도항에서 중도 병풍도를 다녔던 116t 제영호(정원 94명·승용차 18대)가 하루 2차례 울도에 기항한다.

/서부취재본부=조남범기자 wncho@

완도군의회-집행부 상생행보

중앙부처 방문 예산확보 최선



제6대 완도군의 회가 집행부와 상생의 행보를 굳게 걸고 있다. 박삼재 완도군의회 의장

(사진)과 김종식 완도군수는 최근 중앙부처를 함께 방문해 군 현안사업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군의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발목잡기 등으로 지역발전에 역행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박삼재 의장은 “관행을 탈피하고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크고 작은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며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 의원 전문성을 높이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 초심을 잃지않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집행부와는 방황한 판단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로 화합과 협력, 단합된 지혜를 향해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중중음식 직접 만들어요” 그림으로 진행했다.

보성지역 농업인들이 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중중음식을 만들고 있다. 중중음식만 교육은 7회에 걸쳐 중중의 일상식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보성군 제공〉

소외 이웃에 따뜻한 추석선물

목포복지재단 이혁영 이사장, 3000만원 성금 기탁

한 복지재단 이사장이 매년 자비로 생활이 어려운 실직가정 등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목포복지재단 이혁영 이사장(씨엘드고속해리 대표이

사). 이혁영 이사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 3000만원의 성금을 기탁, 지역 소외계층(200세대)·독거노인(200세대)과 사회복지시설(21개소)에 쌀·라면·내의 등을 전달해 풍

성한 추석이 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목포시에서 20여원을 출연해 설립된 목포복지재단은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목포사랑 행복마켓’ 운영, 다양한 복지수혜 개발·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혁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진기자 sslse@

“한국전쟁 상흔 ‘완도철교’ 완전철거 안돼”

일부 보존 여론 속 선박통항 지장 연말 철거

완도를 뚫고 이어준 첫 다리인 완도대교(철교)가 올해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임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진각 철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폭격했던 철골 구조물로 전쟁이 끝난 지난 1963년 분해해 육로로 이송한 뒤 재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군의회 원동리와 달도를 잇는 이 철교는 지난 1963년 4월 착공해 5년 만에 완공됐다. 차도 4.7m, 보도 2.9m, 총 길이 189m로 한강철교와 같은 구조로 건설됐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의 상흔과 연륙의 기쁨을 안겨준 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박정순 완도문화원장은 “완도를 대상으로 연결하는 첫 다리이자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하는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다리를 완전철거 대신 한 부분이라도 남겨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이 다리 개통으로 완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됐고 수많은 섬사람과 동고동락해 왔는데 철거해 고철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컸다. 그러나 연륙의 기쁨을 안겨준 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박정순 완도문화원장은 “완도를 대상으로 연결하는 첫 다리이자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하는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다리를 완전철거 대신 한 부분이라도 남겨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이 다리 개통으로 완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됐고 수많은 섬사람과 동고동락해 왔는데 철거해 고철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컸다. 그러나 연륙의 기쁨을 안겨준 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박정순 완도문화원장은 “완도를 대상으로 연결하는 첫 다리이자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하는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다리를 완전철거 대신 한 부분이라도 남겨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이 다리 개통으로 완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됐고 수많은 섬사람과 동고동락해 왔는데 철거해 고철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컸다. 그러나 연륙의 기쁨을 안겨준 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박정순 완도문화원장은 “완도를 대상으로 연결하는 첫 다리이자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하는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다리를 완전철거 대신 한 부분이라도 남겨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이 다리 개통으로 완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됐고 수많은 섬사람과 동고동락해 왔는데 철거해 고철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컸다. 그러나 연륙의 기쁨을 안겨준 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박정순 완도문화원장은 “완도를 대상으로 연결하는 첫 다리이자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하는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다리를 완전철거 대신 한 부분이라도 남겨 후손들이 볼

“즐겁게 공부하고 성적도 쑥쑥”

함평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호사업 호응

‘함평 학교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보호사업 등 지속적인 교육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 아동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시행하

는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인 ‘행복공간 별빛교실’에 선정돼 방과 후 지속적인 교육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 아동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7년 6월 문을 연 지역아동센터는 개원 이후 1년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역특성상 편모·

편모·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공동모금회 야간 보호사업에 선정되면서 밤 9시까지 안전한 보호는 물론 식사·교육·안전취가·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가 이용하는 아동 숫자도 개원 초 초등학교 15명에서 현재 30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학교성적이 상위권을 독차지하자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었다.

/서부취재본부=황윤희기자 hwang@

<h4>금산공인중개사</h4> <p>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재개발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류가능 <h4>장점</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평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재개발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승강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병행가능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p>T. 681-5666 H. 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p>	<h4>대인동삼일부동산</h4> <p>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p> <p>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p> <p>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설분과 연일 분 손님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p> <p>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p> <p>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p> <p>문 062) 364-1613 의 010-9005-2223</p>	<h4>복대지부동산</h4> <p>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금매</p> <p>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방 금매 (192㎡ 58p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분양가 5억 6천 136만 ● 계약금 5613만원 납부 ● 매매가 <p>주인시정상 싸게 금매</p> <p>문 062) 364-1613 의 010-9005-2223</p>	<h4>상무랜드공인중개사</h4> <p>건물(임대용, 투자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590평 건물 4,400평 (매가 12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 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용차 12억 ■ 토지 164평 건물 598평 (매가 3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 예상 <p>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용, 병영, 학원, 기타부지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4㎡(250평) - 매가 평당 1,300만원(클럽바스쿠장과 매가복스중간사거리가깝) ■ 3,224㎡(975평) - 평당 950만원 ■ 1,651㎡(500평) - 평당 900만원 <p>건물(임대용, 투자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73,000㎡(22만2천평) 전, 담 평당 10만원(동신동(3기)투자로 좋은곳) ■ 공장(가능) 송촌동 자연부지 7,724㎡ (2,200평) 전(매가 1억5천500만원) ■ 상가(상무역주변) 1층 약 100평 매가 평당 2,300만원(브랜드의류등 적합) ■ 농장(나주 신로) 50,000㎡(15,000평) 평당 350만원 ■ 주택(인창동) 토지 843㎡(255평) 주택 36평 매가 평당 60만원 ■ 기타(용도) 동림동 중주거지역(1,352평) 매가 평당 350만원(예식장, 병원, 약국) <p>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따무더 전화 주십시오★</p> <p>문(FAX) 383-5221 현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름 길자랑 1층)</p>	<h4>믿음 공인중개사</h4> <p>■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p> <p>첨단지구 임대</p> <p>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 1층이 아웃렛대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적합</p> <p>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p> <p>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p> <p>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50평, 134평, 100평 매물 (다량보유)</p> <p>구함: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p> <p>공정: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전문</p> <p>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p> <p>첨단근거리</p> <p>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p> <p>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체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T. 971-4911 / H. 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p>	<h4>토지 매매</h4> <p>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p>▶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p> <p>▶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장)</p> <p>길잡이공인중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등록 : 41-0163369호 <p>현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p>	<h4>부동산 미분양</h4> <p>광주의 강남! The S1 더셀아파트</p> <p>25% 파격할인! 최대 1억 2천만원 할인!</p> <p>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p> <p>44py 54py 65py</p> <p>공동주택 문의환영!!</p> <p>분양문의 062) 673-3100</p>
--	---	---	---	---	---	--